

ILJIN

일진그룹—  
일진소재산업  
제약사업부

국민건강을 위한 제약사업. 2000년 1월 1일부터 출혈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약사에게 상의하시고, 「자율성 주의를  
「및 부작용」을 잘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ljin.co.kr>

# 여드름! 112요법

## 이젠, 팩으로 치료하세요.

가까운 약국에서 찾아주세요, 소비자상담실:080-707-9601

에리젤겔은 팩타입의 Erythromycin(4%)단일제제로  
특히, 세균성 여드름에 효과적입니다.

112요법이란?

에리젤겔(30g) 1개로 1개월간 사용할수 있으며 여드름은 최소 2개월 이상 치료하는것이 좋습니다.

# 깨끗한 세상! 깨끗한 피부!

## 기미 주근깨 팩으로 치료하세요.

가까운 약국에서 찾아주세요, 소비자상담실:080-707-9601



먹는 기미·주근깨·여드름치료제로서  
엘-시스틴(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기노미크림 2%는팩타입으로  
도포후 필름막이 형성되어  
효과적으로 기미·주근깨를  
치료합니다.

특장점

- 팩타입** 팩타입의 효과적인  
기미·주근깨 치료제 입니다.
- 1일2회** 아침 및 취침전  
피부에 잘 바르십시오.
- 단일제제** 하이드로퀴논  
단일제제 입니다.
- 6주치로** 좋은 효과를 보기위해  
최소한 6주이상 사용하십시오.

팩타입의 기미·주근깨 치료제-

**기노미**  
크림2%

「파악없는 밝은세상, 새천년의 밝은미래」

# 제 5회 페미니즘 문화제



나를 긍정하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페미니즘

5대 여성위원회

제 5 회

# 페미니즘문화제

2000 · 3 · 27 부터 3 · 31 까지 이화 곳곳에서

나를 긍정하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페미니즘



제5회

# 페미니즘문화제

2000 · 3 · 27 부터 3 · 31 까지 이화 곳곳에서

## 나를 긍정하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페미니즘

### 첫째 날

개막저

여성인 우리, 경험의 발화를 통한 해방을 꿈꾼다

### 둘째 날

새내기들과 함께 하는 시간

그래, 나 이대생이야

### 셋째 날

매매존 관련 다큐 상영 및 강연

성매매 거리에서 쓴 꿈에 관한 보고서

매춘여성들의 올가미 "자율종을 무효화하라"

표지설명 · '여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초상

나의 표정, 눈빛이 그릇된 인상이라고 이야기되더라도, 여성인 내가 충분한 일반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이야기되더라도,  
다른 어떠한 티자로도 대체될 수 없는 독특함을 지닌 나, 나를 긍정하라

### 넷째 날

여성노동관련 여성물 상영 및 강연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좌절스러운 신화

- "나는 여성이다" "나는 일하고 싶다"

### 다섯째 날

여성의 역사 관련 전시 및 여성물 상영

기억에서 역사로

- "한 때는 불가능이라 믿었던 것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될 딸들에게"

페미니즘 문화제 자세히 보기

여성위원회와 함께 하면 자유가 된다

편집후기

숨구쳐 오르기 . I

김승희

억압을 뚫지 않으면

억압을

억압을

억압을

악업이 되어

악업이

악업이

악업이

도버오리파

절벽 모서리에 땀을 짓고

절벽의 모서리에 땀을 짓고

내 엮거리를 찢은 창을 장대로 삼아

하늘 높이

장대 높이뛰기를 해보았으면

눈썹이 푸른 하늘에 닿을 때까지

푸른 하늘에 숨은숨이 젖을 때까지

아, 삶이란 그런 장대 높이뛰기의 날개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상처의 그물을 피할 수도 없지만

상처의 그물 아래 갇혀 살 수도 없어

내 엮거리를 찢은 창을 장대로 삼아

장대 높이뛰기를 해보았으면

억압을 악업을

그렇게 솟아올라

아, 한번 푸르게 물리칠 수 있다면

페미니즘 문화제



나를 긍정하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페미니즘

II

어떤 이유로 페미니스트가 되었나고 묻는다.

그것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

뚜렷이 존재하는 목적과 모순

그것을 바로 나의 일상에서 경험했을 때

나는 분명히 느꼈다.

아무리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 여성 억압은 없다.

II

## 3월 마지막 주 이화 곳곳을 주목하라

3월 마지막 주 여성공간 · 이화에서  
여성주의 문화 창출의 장 · 여성주의 담론 생성과 소통의 장  
제5회 페미니즘 문화제가 시작된다  
기대하시라  
두·근·두·근

### 첫째날

개막제

3월 27일 늦은 6시 30분 이화광장

“여성인 우리 · 경험의 발화를 통한 해방을 꿈꾼다.”

5일간의 페미니즘 문화제가 시작되는 날로,  
여성임을 긍정하는 이화인들의 유쾌한 ‘경험하기’가 될 것입니다.  
여성인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작은 웅얼거림이나 몸짓  
모두가 해방을 꿈꾸는 우리여성들이 모습이라는 것을 느껴보는 시간,  
또 다른 나를 만나보는 시간

3월 27일 이화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여성주의 문화예술단 ‘오름’의 노래극 공연,  
여성주의 밴드의 공연,  
일상 속의 여성억압을 주제로 한 그림자극 공연과  
그리고 여성공간에 대한 폭력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둘째날

새내기들과 함께 하는 시간 · 강연 ( 지혜 님 )

3월 28일 늦은 6시 30분 학생문화관 극장

“그래, 나 이대생이야”

이화라는 여성공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우리의 경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느낀 그리고 경험한

이화라는 공간은 어떠한 곳인지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여성공간의 문화란?

이화인 · 여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이화에 막 발을 들여놓은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신나는 한판이 될 것입니다.

### 셋째날

매매춘 관련 다큐 「꿈에 관한 보고서」 상영 및 강연 (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윤희희 님 )

3월 29일 수요일 늦은 6시 30분 학생문화관 극장

“성매매 거리에서 쓴 꿈에 관한 보고서”

국가에 의해 계속해서 확산 조장되는

성매매 산업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매춘여성의 일상을 담은 ‘꿈에 관한 보고서’를 상영합니다.

매춘 여성과 대학이라는 공간에 있는 우리와 연결고리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춘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가

우리의 일상에서의 성별화된 폭력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매매춘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선이 아닌

매춘여성의 인권을 틀에서

매매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넷째날

여성노동관련 「평화란 없다」 상영 및 강연 ( 한국 여성 민우회 노동센터 문정민 님 )

3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학생문화관 소극장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좌절스러운 신화  
 “나는 여성이다” “나는 일하고 싶다”

경제위기다.

국가와 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할 때, 자본의 논리에 따라 이윤을 극대화하려 할 때,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을 제 1원칙으로 정했다.

구제금융 이후 더욱 기층을 부리는 여성 우선 해고와 여성의 비정규직화,

여성들은 또 다시 가정으로,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내 몰리고 있다.

대학이라는 공간 역시 취업을 앞둔 여대생들에게 있어서 질곡스러운 공간이기는 마찬가지다.

학교의 취업정책은 철저히 운 좋은 소수만을 걸러내고 있고, ‘능력만 있으면 취업할 수 있다’는 식의

허구적 말들로 여성취업현실을 사회 구조조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다.

여성이 일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좌절스러운 신화’가 되어버린 현실...

이것이 우리 고민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 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다섯째날

여성의 역사 관련 상설 전시 및 애니메이션 「반복 중독」 상영

3월 31일 금요일 학생문화관 전시실

기억에서 역사로

“만때는 불가능이라 여겼던 것을 자연스레 받아들여지게 될 딸들에게”

객관적 자료가 있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구성된 것만이 역사는 아닙니다.

묻혀졌던 그리고 배제되었던 여성들의 삶, 경험이

바로 여성의 역사라는 것에 주목하려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성노예 정책으로 인한 상처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살아야하는 여성들의 삶이,

피해자 여성들의 힘겨운 발화를 통해 사회에 알려졌던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견고한 틀을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복중독이라는 홈리스 여성의 일상을 추적한 애니메이션 상영과

퍼포먼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는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상시 합니다.

## 또 · 뭐가있나

기획 거리전 I

3월 27일부터 3월 31일 까지 가정관 앞 공터

“군대 . 나도 할 말 있다”

나예젠 군대에 간 오빠가 있다.

나예젠 군대 간 아들에게 매일 편지를 쓰는 엄마가 있다.

나예젠 군대를 안 가서 군대 얘기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기를 쓰고

친구의 군대 이야기를 하는 아빠가 있다.

나예젠 한 달에 두 번 군대 간 애인에게 면회를 가는 친구가 있다.

나예젠 꼬박꼬박 편지를 쓰다 이제는 뜬금없는 군대 간 선배가 있다.

이래도 내가 군대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고?

이래도 내가 군대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기획 거리전 II

3월 27일부터 3월 31일 까지 학생문화관에서 우뚝길로 가는 숲길

“상상과 벽 사이의 괴리”

여성은 구조조정과 함께 최초로 해고되는 노동자이다.

구조조정은 시장 영역에서 노동력의 여성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다른 한편 재생산 영역에서 여성노동의 사용증가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은 일자리의 결여, 빈곤, 사회적 해체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의 파괴에 일차적인 희생자이다.

‘빈곤의 여성화’라는 테제.

최근 주변의 선배들을 보면 계약직이거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여대생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수치만으로는 여대생들의 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예전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대생들은 대부분 하향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 새내기와 함께

### 그래 나 이대생이야

“...그러나  
이화에도 밥 사줄 새내기들이  
들어오길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널려있다.  
단지 그것이 남녀공학처럼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  
새내기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뿐이다”

## 새내기

# 그래 나 이대생이야 i 그래 나 이대생이야 i

'여대'라는 공간, 그리고 특히 '이화'라는 공간에 대한 시각은 대개 부정적이다. 그리고 그 시각은 철저히 가부장제에 의해 길들여져 있다. 그 시각에 맞춰 얘기하자면, 이대에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미도 없고, 여자들끼리 있기 때문에 공부는 뒷전인 채 꾸미는 데만 열심이며, 미팅 나오는 남자들의 학벌에만 혈안이 된 '골빈 년들의 집단'이다. (표현이 너무 심하다고? PC통신 플라자란에 가면 보름이 멀다하고 올라오는 이대생들에 대한 남성들의 더 화려한 표현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화여대는 여성들만이 모인 여성 공간이다. 4년쯤 이어지는 '이대생' 생활에서 우리는 여성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여성들 사이의 연대를 이루어 내기도 하며 여성으로서의 나를 발견할 기회를 자주 갖게 된다. 언제나 남성의 보조자로서의 역할만을 강요받는 지금 사회구조 속에서 이 같은 경험은 여대이기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해마다 펼쳐지는 이화 대동계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날 밤에 하는 영

어대 붙었다는 소리에 나오는  
전적들의 반응, "그래, 너  
이제 시집은 잘 가겠구나"  
-남녀공학 친구에게서 전  
화가 걸려왔다. 요즘 바빠 죽  
겠다 한참 학고생들을 자  
랑하더니 '무슨 재미로 여대  
다니냐'는 말로 결국 내 속을  
끓여 놓는다.

-그외 하는 꼬마까지...

"선생님은 이대생인데 왜  
화장도 안하셔요?"

나, '대학'에 들어간 게 맞  
긴 한거지?

정해진 시간도 없고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꼬아야만 하는 강요도 없다. 그렇게 자발적인 참여로 완성된 이화인들의 공동작품은 Y대에 다니는 친구가 말하듯 '가기 싫어도 눈총받지 않으려면 가야만 하는' 단체용원제 문화가 아니라 개인의 참여의사가 존중받는 이화 대동계 문화의 상징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대로서의 재미'는 '남녀공학의 진짜 재미'에 묻혀, '대학 다니는 재미'가 없는 비정상적 공간'으로 취급받고 있다.

"언니, 무슨 대학생들이 이래요? 엄마가 너는 왜 맨날 일찍 들어오나 그래요?"

"남녀공학 다니는 친구들은 차비만 갖고 다닌다는데, 전 맨날 혼자 밤사먹어야 되고..."

"이대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거 같아요 선배 볼 기회가 없어요"

산 줄다리기가이다. 그 줄다리기를 위해서는 굵은 줄이 필요한데, 대동계 시작하기 한달 전부터 이화인들은 누구나 '꼬우미'가 되어 줄을 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남녀공학 다니는 친구들이 온근히 자랑하는 사발식과 선배의 밥 사주기 문화에 비하면 이대 다니는 새내기들은 대학 다닌다고 말하기도 창

피하다. 그러나 이화에도 밥 사줄 새내기들이 들어오길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동아리 선배들과 술을 물처럼 잘 마시는 이화인들이 널려있다. 단지 그것이 남녀공학의 그것처럼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 새내기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뿐이다. 남녀공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술 먹기가 싫은 새내기가 분명 있을 것이고,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밥값 때문에 밥사주기 전통이 싫은 선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들은 '집단에서 벗어난' 그것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꿈꿔온 대학생살이 겨우 이런거예요?"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새내기들의 불만에 찬 목소리들. 이화의 새내기라면 한번쯤 경험하는 학교생활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는 '여대는 원래 그런건가봐'라는 부정적 체념으로 '재밌다'는 문화는 수직적 체계를 근간으로 한 집단주의적 남성 문화이 남게 된다. 결국 그들은 여대가 가진 여성공간으로서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학교 분위기에 적응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여대 문화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제시하고 공학문화 우월주의에 대한 안티를 걸고 싶었을 뿐이다.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든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혹은 결론을 내리지 않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준 새내기들에게 달려있다.

대학은 남성이 있어야만 재미가 있는 곳이 아니다.

(또는 포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급기야 학교를 그만두고 재수를 하게되는 경우도 있다.

"난 여대 다니는 애들 진짜 이해안돼. 차라리 점수 좀 낮추더라도 남녀공학을 가고지금 남녀공학의 소위다. 여대문화는 시시한 것으로, 여대는 남성이 결핍된 비정상적 공간으로 취급하는 사고 역시 여성공간을 무시하는 철저한 남성중심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려는 것이 '남녀공학 문화는 잘못된 거고 우리가 말하는 여대 문화가 더 좋은거다'라는 식의 이분법적 생각은 아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르쳐주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각각 존중 받아야 할 두 집단의 문화적 특성이 서로 대등한 위치를 가지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여대 문화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제시하고 공학문화 우월주의에 대한 안티를 걸고 싶었을 뿐이다.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든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혹은 결론을 내리지 않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준 새내기들에게 달려있다. 대학은 남성이 있어야만 재미가 있는 곳이 아니다.



## 매매춘

### 성매매 거리에서 쓴 꿈에 관한 보고서

다름 속에서 같음 찾기.  
같음 속에서 다름 찾기...  
이제 단순한 동일시를 넘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장기적일 우리의 운동과  
더 단단한 연대를 위해...

## 성매매 거리에서 쓴 꿈에 관한 보고서

그래, 그 여자들의 상황은 알겠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있는지 모르겠고

그 여성들과 나를 동일시 하기는 힘들다."

매매춘문제를 이야기 할 때면 듣게 되는 이야기이다.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졌고, 어느 정도 비슷한 환경을 가진 대학생으로서

매춘 여성과 자신을 같은 여성으로서 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과정일 수도 있다.

매매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 매춘 여성들과 우리는 성상품화가 당연히 어겨지고

여성이 대상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기에 분명한 연대의 고리가 존재한다.

우리사회는 파는 자가 있기에 사는 자가 어쩔수 없이 존재한다고들 한다.

성을 사는 자가 있기에 파는 자도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 걸까?

## 미아리 미성년자 매매춘 단속을 통해 본 한국사회 매매춘 담론

얼마 전, 중앙 경찰서에 김강자 서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속칭 '미아리 텍사스'의 미성년자 매매춘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전 근무지였던 육천에서 관내 티켓다방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김강자 서장은, 다음 근무지로 매매춘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미아리 지역을 택하였다고 한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은, 미아리 지역의 미성년자 매매춘이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연일 김강자 서장의 활약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미성년자 매매춘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있는 가족 이데올로기에 호소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를 '성적 타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가정과 학교로 돌려보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잠재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며칠 전, 어떤 신문의 독자 칼럼에 쓰였던 문장을 인용해서 "그러면 19세 미성년자의 매매춘은 문제시되고, 20세 여성의 매춘

중요한 것은 '매매춘'이라는 사회적 현상은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성별화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권력을 가진 한 성(性)이 다른 성을 억압하는 구조적 문제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매매춘 담론을 살펴보면, 성인 여성의 매매춘은 자발적인 선택이며 성적으로 타락한 일부 여성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매매춘이 존재함으로써 남성들의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해소하고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남성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에게도 뿌리깊게 남아있다.

은 자발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기 바란다.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규정짓는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매매춘을 성별화된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19세'라는 선을 그어놓고 이중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매춘'이라는 사회적 현상은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성별화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권력을 가진 한 성(性)이 다른 성을 억압하는 구조적 문제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매매춘 담론을 살펴보면, 성인 여성의 매매춘은 자발적인 선택이며 성적으로 타락한 일부 여성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매매춘이 존재함으로써 남성들의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해소하고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남성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에게도 뿌리깊게 남아있다.

다시 미성년자 매매춘 단속의 이면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매매춘에 대한 일반화된 사회적 편견과 미성년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맞물리면, 성인 여성의 매춘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들이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정 지역에 한정된 단속은 오히려 미성년자 매매춘을 더욱 음성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조선시대의 가부장제가 아직도 위력을 떨치고 있는 21세기의 한국에서, 성(性)이나 매매춘에 대한 다양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하는가 뿐이다. 매매춘을 둘러싼 담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다. 특히, 매매춘의 한 당사자이며 피해자인 매춘여성들은 이러한 논의

조선시대의 가부장제가 아직도 위력을 떨치고 있는 21세기의 한국에서, 성(性)이나 매매춘에 대한 다양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하는가 뿐이다.

우리 주변에 난무하는 성 담론의 주체가 여성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피해자가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안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매매춘이 존재하고 있다. 미아리나 청량리와 같은 전통형 매매춘이 몸싸움,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과 같은 산업형 매매춘과 함께 번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조교제나 전화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매매춘이 확산되고 있다. 어떠한 형태의 매매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성에게 억압적인 것이라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 매춘여성들의 올가미 '차용증을 무효화 하라'

유태희 / 매매춘근절을위한 한소리회

며칠전의 일이다. 고모와 조카사이인 두 사람이 사무실로 상담을 왔다. 고모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흥분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현주(가명, 만16세)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동생과 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래 전에 가출하여 함께 살지 못했다. 고모 말씀으로는 그나마 할머니가 금지옥엽 키워서 현주가 착하게 잘 자랐다고 하신다. 그런데 작년 11월 무작정 집을 나간 현주는 새해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고모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여 현주가 경기도의 한 다방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업주는 현주란 아이는 없다고 잡아매었다. 그때 마침 현주가 나타났다. 고모는 현주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 업주와 몸싸움을 해야 했다. 그리고 현주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랑의 걸근비)를 올리는 등 석달 여 만에 23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업주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중국남자들과의 매춘을 강요하면서 화대를 받고 다방 위층의 여관으로 올려보내곤 하였다. 노래방, 술집, 여관 같은 곳에서도 티켓을 끊었다. 이 모든 것을 현주는 깨알같은 글씨로 하루하루 일기를 쓰며 기록했고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업주는 구속되지 않았으며, 담당 형사는 "출장수사를 나갔는데 그쪽도 그만한 사정이 있더라"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심지어는 업주가 전화를 해 '2백만원 줄테니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까지 하였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고서도 오히려

협박이구나.." 십대매매춘과의 전쟁이다 뭐다 해서 경찰서 특별단속기간이라는데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상담기관을 찾게 되었고 본회에까지 오게 되었다.

현주는 지금 쉼터에 입소하여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업주를 조속히 구속수사하라는 내용의 조치를 취한 상태이다. 십대매매춘과의 전쟁이 선포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1월말의 일이다. 미아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창가 지역을 포함한 경찰서의 십대매매춘 근절의 강력한 의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에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라는 조항이 있다. 이는 매매춘으로 인한 빚은 무효라는 조항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이 쓴 차용증이 매매춘으로 인해 생겨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고소시 사기범이 된다. 현주의 경우에도 230만원이란 빚은 매매춘으로 인한 빚이기에 무효처리되어야 한다. 더욱이 현주가 미성년이기에 계약성립도 원래는 안되거나 일기장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무효처리 되지 않는다면 이후 몇 년이 지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회상담사례에 의하면 미성년 때 쓴 차용증 180만원(본인이 차용하지 않았으나 업주의 협박과 위계에 의해 강제로 쓴)을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주도 이번에 차용증이 무효임을 어떻게든 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매춘여성들은 왜 빚을 지게 되는가? 현주가 있었던 티켓다방의 경우 하루 평균 16시간 동안 일을 한다. 지각하거나 결근하면 그에 따른 벌금비를 내

야 한다. 더욱이 손님으로부터 티켓비를 받아 입금을 해야하는데, 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여성의 빚이 되고 만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일하게 되면 월급으로 책정된 1백여 만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빚이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빚은 늘어나게 되고 빚에 의해 여러 다방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다. 현주도 3개월 동안 5곳의 다방을 거쳤다.

사창가의 경우에는 숙식비(월 1백여 만원), 세간비(처음에 2-3백만원), 결근비(몇십 만원), 족보(3-5명의 손님을 하한선으로 두는 것이며, 족보를 못한 만큼 여성의 빚이 된다), 이자(5-10%)등이 빚을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된다. 족보를 겨우 넘어야 여성은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하루 손님 10명에 60만원 수입이면, 업주 30만원 여성 30만원으로 분배한다. 만일 5명의 손님을 받으면 여성은 그날 수입이 없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여성들은 자연히 빚이 쌓이게 되며 매춘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게 된다. 무작정 도망을 나와 잡히게 되면 하이방비(여성을 쫓는 경비)로 수백 만원이 빚으로 쌓이게 된다. 이러한 빚구조는 방석집, 톨살롱 등 다른 매춘업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여성들은 빚때문에 직업소개소에 의해 여기저기 매매되는데, 여기서도 몇십 만원, 몇백 만원의 소개비가 여성들의 빚이 되기도 한다. 매춘 여성들은 일의 특성상 자궁관련 질병에 걸리는 일이 많은데,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다. 얼마전 미아리에서 나온 한 10대 친구에 따르면 “밀이 아프면 병원에도 못 가요 주사아줌마가 와서 주사한대 맞고” 치료를 끝낸다고 한다. 특히 쇼를 하는 여성들의 경우 자궁을 다치는 일이 많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모든 것이 매춘여성들의 일상적인 어려움들이다. 여기에 업주와 직업소개소 직원에 의한 성폭행,

폭력 등에 시달리기도 한다. 매춘여성들이 매매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매매춘을 금지하고 있는 법은 단지 매매춘을 하는 남성과 여성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매춘여성들이 빚을 왜 지게 되었는지, 포주로부터 폭행당하지는 않았는지, 인신매매되지는 않았는지를 조사해서 여성이 매매준으로부터 벗어나게 돕지는 않고 있다. 또한 매매춘을 바라보는 법적

한국에서 매매춘을 금지하고 있는 법은 단지 매매춘을 하는 여성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매춘여성들이 빚을 왜 지게 되었는지, 포주로부터 폭행당하지는 않았는지, 인신매매되지는 않았는지를 조사해서 여성이 매매준으로부터 벗어나게 돕지는 않고 있다.

태도도 많은 문제가 있다. 매매춘은 분명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있는 행위이다. 그런데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윤락행위’를 ‘도덕적으로 타락한’이란 개념으로 사용하며, 그것을 ‘윤락행위자=여성’, ‘그 상대자=남성’으로 해석,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요보호자’를 여성으로 규정하고 선도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성은 선도할 이유가 없는 단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잠시 상대한 자일뿐이고, 이에 반해 여성은 선도해야만 하는

타락한 여성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 법 태도 이전에 매매춘은 왜,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되어야 한다. 매매춘은 ‘도저히 양도할 수 없는 것’을 사고 파는 행위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팔지 못할 것이 없는 데’로 시작하는 문제의식은 분명 여러 가지 문제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성을 사는 남성손님은 여성의 자궁만을 30분, 1시간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여성전체를 사서고대로 할 수 있는 통제권을 사는 것이다. 그것은 콧등사용여부, 채위결정 등사고파는 행위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떠한 ‘합의’도 없이 남성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여성은 단지 종속적인 지위에서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매매춘행위에서 있을 수 있는 욕설, 폭행 등도 통제의 대상이 되는 여성이 감수해야 되는 몫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매춘은 분명 노동, 정당한 거래 등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면 흔히 돈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매매춘을 하는 여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얼마전 용주골에서 도망 나온 소희(가명, 만19세)는 7살 때부터 고3때까지 계부로부터 성폭행과 폭력으로 시달려왔다. 그리고 가출을 하였고 독립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소희는 매매춘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소희는 7백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소희는 계부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예전에는 많은 여성들이 절대적인 빈곤으로 인해 매매춘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대적인 빈곤, 친부·계부에 의한 성폭행, 학대, 구타 등으로 인해 10대에 가출하게 된다. 이들은 학력이 낮고 기술이 없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에 한계를 느끼며, 숙식까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매매춘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매매춘

성들의 선택을 과연 자발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 미아리를 위시한 심대매매준과의 전쟁은 심대 매매춘은 ‘절대 안돼’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매매춘여성들의 인권유린 현장을 고발하고 그들의 탈매매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차용증은 반드시 무효처리되어야 하며, 이들이 매매춘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대안은 기술교육이나 인성교육 등을 포함하여 사회에서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살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청소년 성보호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본래의 법안보다 많이 후퇴하였다. 심대 성을 사는 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가 ‘공개할 수 있다’로 고쳐지고 게다가 ‘신상을 공개할 때 범행동기, 전력,

죄질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한다’는 조항이 덧붙여진 것이다. 만일 50대의 남자가 미성년자와 매매춘을 했다고 가정하자. 미성년자의 나이? ‘물랐다’, 범행수단과 결과?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범행전력? ‘없다’, 죄질? ‘아무런 강요나 폭력이 없었다’,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대가족의 가장이고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 딸이 있다’, 범행 후의 정황?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 문제는 법을 집행하고 매매춘을 근절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매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지녀야 하며, ‘필요악’이니 ‘공방’이니 하는 주장이 단지 자본과 남성만을 위한 것임을 바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 여성노동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좌절스러운 신화

“나는 여성이다”

“나는 일하고 싶다”

값싼 노동력, 언제든지 정리해고 할 수 있는 노동력,  
여성들은 철저하게 가정으로, 노동시장의 주변주로 내몰리고 있다.  
대학은 여대생들 하여금 ‘노력만 하면 취업 할 수 있다’는 허구적인 말들로  
현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현실을 은폐시키고 있다.  
사회는 허구적인 통계로 여성 실업을 은폐시키고 있다.

상상과 벽에 갇힌 좁은 공간 사이의 괴리,  
여성임에도 일하고 싶다는 것이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좌절스러운 신화가 되어버린 현실,  
여기에서 출발한다.

## 여성노동

#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좌절스러운 신화 나는 여성이다 나는 일하고 싶다

하나. 상상과 벽 사이의 괴리·사회

### 1. 신자유주의에 의한 신보수주의의 강화

#### 1) 남성편향의 구조조정은 여성의 희생을 원한다.

한국 사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경제위기 이후 이렇게도 퇴행이 빠른 것을 보면 그동안 사회속에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던 이데올로기들은 시대적으로 정도만이 달라졌을 뿐 계속 존속, 유지되어 왔었던 것이 아닐까란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경제위기 이후의 상황은 여성들에게 가혹하기만 하다. 구조조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여성의 재생산 노동의 증가와 노동강도의 심화, 여성의 노동 시장 참가, 특히 비공식 부문 노동력으로 진출, 교육에 대한 젠더 편향의 증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의 악화,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등과 함께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의 비용, 즉 가정 폭력의 증가 등을 거론하고 있다. 여성은 구조조정 정책의 도입과 함께 최고로 해고되는 노동자이다. 일자리를 상실한 여성들은 비공식 부문에 참가하는 이외의 대안은 없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비공식 부문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향락산업 등의 성산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성폭력과 연관된다. 그리고 임금 동결 또는 공식 부분에서의 고용전망의 악화 때문에 비공식 부문에서 자신의 임금

을 보충하려는 시도도 있다. 그러나 사회 서비스 저출의 착감은 보살피는 사람으로서 여성의 부담을 가중한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거시적 모델은 여성이 수행하는 무급 노동-가사노동, 보살핌 노동 등-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가족 또는 재생산 경제가 거시적 경제 정책의 변화로 인해 야기된 변화를 완전히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가족이 사회적 서비스의 착감과 사회 정책의 부재로 구조조정의 파괴적 효과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외채를 갚는 데는 유용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적 자원의 다양한 파괴를 가져온다. 따라서 구조조정은 시장 영역에서 노동력의 여성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다른 한편 재생산 영역에서 여성노동의 사용증가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은 일자리의 길여, 빈곤, 사회적 해체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의 파괴에 일차적인 희생자이다. ‘빈곤의 여성화’라는 태세. 여성은 가족과 공동체에서 불안정한 노동을 감내함으로써 체계에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

#### 2) 신자유주의, 가족의 위기의 근본원인을 은폐하기 위한 가족이데올로기의 강화

현재 우리에게 가족은 ‘신성한 사적영역’으로 사고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신성한 사적영역이 붕괴되고 있다.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의 이면에는 해체된 가족이 있고, 유기된 노인들과 소년·소녀 가장의 문제 역시 가

족의 위기와 해체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현재 30%이상으로 늘어가는 이혼율, 성 산업으로 유입되는 10대들과 기혼 여성들의 문제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가족의 위기와 해체의 경향은 가족이데올로기의 강화로 드러나고 있다. 가족내의 유대감 붕괴와 전통적인 가족의 질서 파괴등등 그 원인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또는 전통적, 유교적인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영역을 담보하는 여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가장 많이 이야기 되는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는 아이들의 교육문제나 노인들의 봉양의 문제의 제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곧 사회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가족의 위기와 해체는 '금융자본의 무제한적인 부의 추구와 국가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성마저 부정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당연히 초래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아메리카의 역사를 보면 본격적인 가족의 위기 시대가 되는 1870-90년대와 1970-90년대에 나타난 '가족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강조, 사생활의 감상화는 무제한적인 부의 추구가 용인되는 사회적 경향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1873-1896년 불황에서 대부분 중산층의 관심은 금융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있었고, 1970년대 불황이후 중산층의 향방도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제를 조작하여 자기 이익을 보존하는 데로 쏠리고 있었다. 이런 경향속에서 1870-90년대 가족에 유일한 윤리적인 도덕성을 개척하려는 시도는 1970-90년대에 출현한 가족의 가치를 주장하는 흐름과 유사하다. 이와같이 가족의 해체는 복지정책의 축소와 가족임금 제도의 약화 및 임금의 불안정으로 초래되는 것이다. 가족이데올로기의 강화는 신자유주의의 가족해체 경향을

은폐하고 사회적영역=여성으로 하여금 해체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를 부담하게 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의 술책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하에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가족의 해체 또는 '빈곤의 여성화'에 있어서도 훨씬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고... 이러한 위기에서 신자유주의는 노동력 재생산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 3) 남한에서의 가족이데올로기 강화의 경향

가족의 해체 경향을 가족내에서 살펴보면 물가의 상승이나, 소비의 증가, 교육비의 사회적부담의 증가 등으로 예전에 경제 참여율이 M자형)을 보였던 여성들이 1970년대 이후 전기기간에 경제활동을 담보하게 되면서 실제 노동과 가정생활의 공존이 불가능해 졌다. 그러면서 노동의 재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들의 변수들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신자유주의는 가족에게 노동력 재생산의 위기를 전가하려는 의도를 숨긴채 윤리적 도덕적 측면으

1) 여성들의 경우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의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미혼일 경우 약 20~30세까지 대다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되고 가정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30~40대까지는 경제활동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고 나이가 들면서 생계문제 때문에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통계곡선이 M자형을 그리고 있다.

로서 가족의 강화를 주장하게 된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결혼의 쇠퇴와 가족의 위기가 드러나는 경향들 - 이혼, 동거, 재혼, 여성가장 가족 -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그들을 이단 취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작년 황혼이혼의 폐소 판결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가족의 위기의 배후에는 여성노동이 있다고 고발하면서 '아버지의 부재'의 문제가 요구하는 사회적 적응의 내용을 부각시키면서 여성들을 더욱 위협한다.

남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황들이 훨씬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남한 가족은 가족임금 또는 복지 제도 등으로 국가에 의해 강력하게 지원되었던 적이 없고, 가족이데올로기 또한 취약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하에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가족의 해체 또는 '빈곤의 여성화'에 있어서도 훨씬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고, 기존의 가족이데올로기에도 해체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가치를 옹호하고 유교적 가부장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요즈음 존재하지도 않는 가부장 중심의 대가족을 배경으로 하는 가족 드라마가 붐을 이루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페미니즘의 대안이라는 것이 여성가장에게 쉼 나눠주기, 실직 가장들의 자녀들의 일탈을 막기 위한 캠프등을 진행해 왔다.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이것이 상징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가족주의에 대한 옹호로 비추어졌을 수도 있다.

2. 빈곤의 여성화, 폭력에의 노출로 여성들의 권리는 축소되고 있다.

가족이데올로기 강화되면서, 자본주의로 인해 당연히 초래될 수밖에 없는 가족의 해체의 문제를 가족, 특히 여성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빈곤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계층에 비해 빈곤 계층에서 40-60대 장·노년층의 여성가장이 2배 이상 발견된다고 한다. 빈곤의 여성화의 이와 같이 독립가구를 이루는 여성가장의 증가뿐만 아니라 여성의 빈곤이 축적되는 양식이 생존을 위한 전전전략으로 인해 초래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이후에 여성가장의 증가 비율이 16.8%에 이른다고 한다. 빈곤층의 가족의 경우 남성가장의 대부분이 열악한 조건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담당해 오면서 남성가장들은 일찍부터 질병으로 무능해 지거나 사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수입을 배가시켜야만 한다. 하지만 남한사회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를 대폭 줄이거나 가족들이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된다.

또한 아메리카와 달리 여성가장의 빈곤층 보다 가족내에서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여성들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남한가족의 특수한 경향이다. 가족내에서의 생존전략은 딸이 우선적 희생, 낙태를 통한 가족수의 조정, 가구주의 사망에 따른 재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여성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드라마에서도 흔히 그러지듯이 아버지의 실직, 병고, 사망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취해지는 조치는 딸의 진학포기와 취업에 대한 요구이다.

결론적으로 가족주의와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가, 구조적으로는 전반적인 복지정책의 축소와 남성가장 중심의 복지정책에 의해 빈곤의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 1)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빈곤의 여성화를 조장한다.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하에 노동유연화 전략으로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등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수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떠나거나 계약직이나 시간제 등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화의 경향이 심화,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이 실질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을 빈곤에 빠뜨리게 된다.

현재 시간제 노동자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연령이 30~39세 여성들이다. 이는 올 한해도 논란이 되었던 생리휴가의 폐지와 모성보호 정책 축소 등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 정책의 축소로 인해 이중의 부담이

강화되면서 시간제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한 남성들의 실업률, 고용불안정,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가족생계를 위해 선택의 여지도 없이 여성들이 진출할 수밖에 없다. 다시말해, 가족이데올로기 강화로 여성들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기업에서 역이용하여 정규직을 계약직이나 시간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유연화 전략과 더불어 노조의 가부장성은 여성들의 비정규직화를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사건과 현대자동차 식당 아주머니들의 예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신규 여성취업자들의 경우에도 대다수의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의 직종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며,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입직과정의 차별을 강화 -군복무 가점제 존치 방안-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거 실망실업자로 포섭될 것임은 예년과 같은 전망이다. 이에 얼마전 노동부에서 인턴사원의 50%의 여성을 고용하도록 기업을 강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근본적으로 거대하게 자리잡고 있는 여성들의 실망실업자군의 문제의 해결에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서 단기간의 가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만을 입안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통계상에 발표되고 있지는 않으나, 실망실업률은 잠재적인 사회문제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것이다. 얼마전 국민승리 21이 실망실업률도 실업통계 발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승소했다고 한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경기가 풀려 신규 채용이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로 실업의 문제가 전혀 문제제기되고 있지도 않고 이슈화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규여성실업의 문제를 공론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신보수주의 김대중 정권

김대중정권은 '여성주의적, 진보적이다'라는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키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지원과 억압의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가시적인 효과로 여성정부로 인정받고 있다.

작년 한해는 여성운동 단위들에 있어서 오랜 기간의 투쟁의 결실을 하나의 맺었던 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 직장내 성희롱 조항 신설, 여성특위 신설,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신설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성과는 한 세기를 마감하는데 충분했다. 하지만 그 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행정

력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법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적용되지도 못했었다. 또한 예산 역시도 축소되었다.

여성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측면에서 여성특위의 건설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실질적인 행정의 담보도 없었고, 노동부나 사회복지처들의 정책논의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입안되는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각 부서별로 여성부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문제는 김대중 정권이 가시적, 형식적인 성과만을 노리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단적인 예인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지원의 측면에서는 법제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상황이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파견근로제, 정리해고의 법제화의 칼날이 여성들의 지원정책보다 더 빠르게 적용되어 왔고, 적용되고 있다. 여성들은 법제화이후 더욱 빠른 속도로 비정규직화되었고 그로인해 빈곤화의 경향은 매우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는 가족주의를 옹호하고 성별분업, 가족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기 위한 보수적 정권임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 상상과 벽 사이의 괴리. 대학이라는 공간

### 1. 사회 모순이 유입된 공간, 대학

현 시기의, 특히 구제금융 이후 심화된 경제 위기의 상황은 대학이라는 공간에도 그대로 유입된다. 어느정도 사회와 독립된 공간으로 사고되

는 '학문담구의 장'으로서의 대학공간은 이미 사라졌다. 대학은 자본이 요구하는 기능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자격' 혹은 '과정'을 제공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부는 대학을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인 양성소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개혁 5개년계획, BK21, 학부제 실시 그리고 얼마전 발표된 기업의 대학 평가 등은 대학이라는 공간이 결코 사회 모순과 분리된 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인들 역시 이러한 기업과 자본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신규 실업이 대학인들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학인들은 취업준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학의 취업 정책은 취업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주변의 선배들을 보면 계약직이거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여대생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수치만으로는 여대생들의 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전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대생들은 대부분 하향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 1)이화 당국의 취업정책

이화 당국 역시도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취업 현실과 괴리된 취업 정책

을 실시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인의 조건과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착되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극소수의 여성만을 상정한 취업 정책은 다수의 이화인을 취업정책에서 탈락시킨다. 새시대에 적합한 전문인 육성'으로 대표되는 이화의 정책은 극소수의 여성들만을 걸러내려는 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각 영역에서 최초의 여성 전문인을 배출한 곳으로서의 이화를 강조하고, 제도권외의 접근에 성공한 극소수의 이화 출신 여성들을 부각시키면서 이화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주입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학교의 취업 정보실 역시 대기업의 요구 조건을 갖춘 몇몇에게만 적용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졸업생 취업을 수치 역시 비정규직, 임시직 등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는 은폐시킨 채 높은 취업률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신규 채용시부터 비정규적으로 고용되고, 설사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여성 우선 해고와 비정규직화를 통해 여성은 계속해서 노동시장 주변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당국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좁은 취업문을 뚫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속에서 여대생들은 '자기 전략 세우기'를 통하여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업의 요구조건 충족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채용률 자체가 워낙 낮고 입적과정시의 성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대생들의 학점, 토익, 자격증 등이 취업 시 객관적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 사회의 노동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차원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학교 당국은 '능력만 있으면 취업 할 수 있다' 따위의 말들로 사회 구조적인

차원의 실업 문제를 개인에게 환원시키고 있다.

'구제금융 이후 열세를 면치 못하던 여학생 취업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지난 98년 상반기 졸업생 중 순수 취업률이 53.1%에서 99년에는 60.6%로 7.5% 상승했다.

-99년 9월 1일자 조선일보

이화 당국에서 발표한 위의 자료대로, 정말 여대생들의 취업 현실이 나아지고 있는가? 고학력 여성의 '하향'취업에 관한 연구(1999)에 의하면 실제로 10년간 대졸 여성의 대기업 채용 규모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90년대 이후 대졸자 전체 취업률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학력 여성의 경우 취업을 자체가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취업이 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이 되는 등 노동시장 내에서의 주변화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최소의 비용을 통한 최대의 이윤 추구라는 자본의 논리는 노동시장 유연화 전력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값싼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고 장시간 노동을 감수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유순한 노동력을 어떤 집단으로 상정하는가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가 성별분업 이데올

로기인 것이다.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므로 여성은 우선 해고되어도 좋다', '결혼이라는 평생 안전의 직장이 있으므로 여성 실업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라는 식의 기제들은 여성 노동권의 문제를 생존권의 측면에서 말 할 수 없도록 조장한다. 여성 노동자에 가해지는 성차별적 해고와 비정규직화 현상은 자본이 이윤의 극대화에 기능하는 '유순한 노동력'으로서 여성 노동자 집단을 상정하는 것을 드러내 준다. 이는 빈곤 계층 여성의 저임금 장시간 가내 노동,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되지 않는 여세 사업장에서의 노동 착취부터 기존 여성노동자의 우선해고와 비정규직화, 고학력 여성 실업 문제로 까지 이어진다.

최근 주변의 선배들을 보면 계약직이거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여대생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수치만으로는 여대생들의 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전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대생들은 대부분 하향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 위기 이후 대졸 여성들은 자신의 전망과 능력에 따른 노동조건 하의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더 이상 수치로서 은폐될 수 없는 여성노동의 현실속에서 학교 당국은 여전히 여성 전문인이라는 환상을 유포시키는 동시에 최초의, 최고의 여성 인력 양성소로서의 이화를 드러내기 위한 '수식'정도로 허구적인 취업률을 발표하는 것이다.

## 영상물 소개

### 평화란 없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12년, 그리고 IMF

지금 여성노동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직장과 가정, 모든 여성은 슈퍼우먼이 되어야만 하는가?

직장에서는 승진, 입부, 임금에 이르기까지 온갖 차별을 감내하며 고된 시간을 꾸역꾸역 견뎌낸다. 그리고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들이 말하는 '여성 본연의 임무'인 가사노동에 시달린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IMF, 여성노동자의 희생이 필요하다...?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의 칼날은 가차 없이 여성에게 향한다. 가정과 직장의 이중고를 감내하며 일하던 여성들에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 기살리기'에 전념하라고 근엄하게 타이른다.

남아있는 여성들, 그러나 ...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은 여성노동자들

을 그 발판으로 삼고 재빠르게 진행된다. 고용평등의 심화와 비정규직의 확산. 여성들은 보다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린다.

과연, 대안은 있는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향하여, 척박한 현실을 개나가기 위하여...

제작

푸른영상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전화

736 7883

팩스

736 5766

E-mail equal  
@womenlink.or.kr



## 여성의 역사

### 기억에서 역사로

“한때는 불가능이라 여겼던 것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될  
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객관적이라고 믿고 있다면 수십년 동안 묻혀져야 했던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의 상처로 얼룩진 삶을 떠올려 보자. 기독교가 구정한 충분한 일반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역사'가 되지 못한 여성들의 생애를 떠올려보자

# 기억에서 역사로

한때는 볼가등이라 믿었던 것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될 딸들에게

## 1. 미시사적 역사서술의 의미: 진즈부르크

### 1) 우리들의 입장에서 고찰해야 할 몇 가지 것들도 포함하여

미시사란 한 마디로 작은 역사의 이야기이다. 즉 이는 역사 연구의 관심을, 사회의 전반적 구조나 변화의 거대 과정에서 작은 것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종래의 역사서술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을 발굴해내고자 하는 역사서술을 말한다.

즉 왕조나 지식인, 혹은 전체적인 구조의 차원에서 역사에 접근하는 학문이라기 보다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에 관한 학문'이다. 따라서 미시사적 역사서술이 전념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테두리를 결정하는 구조를 밝힌다는 보다는, 그러한 구조가 현실적인 힘을 발휘함으로써 초래된 권력의 문제들이다. 어떤 특정한 삶의 의미체계와 권력 관계가 구조적인 틀로써 성립되는 과정을 세세하게 그려내기 위해, 미시사는 일차적으로 인식 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키며, 구조화 과정 속에서 제외되고 소실된 것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즉

2) 진즈 부르크의 '치즈와 구더기'라는 이야기가 이를 설명하는 예로 언급되었다. 이는, 1599년 중세시기 이단 재판으로 처형된 메노키오라는 한 방앗간지기의 삶을 생애를 그린 것인데, 메노키오는 당시 중세적 세계관으로써는 전혀 상상할

미시사가들이 목표로 하는 역사 서술은 전체적인 시각에 의해 외적이거나 사소한 것으로 제외되었던 것들에서 과거에 실현될 수 있었던 역사의 다른 가능성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다. (즉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이 '작은 이야기'의 중요성은 거기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거나, 때로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 변화의 연쇄작용이 역사의 큰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수 없는 근대적 사고의 원형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생각과 믿음에 의하면 '태초에 모든 것은 땅, 공기, 물 그리고 불이 뒤섞여 있었던 카오스였다. 그러한 카오스의 소용돌이로부터 물체가 생겨나게 되었다' (생략)

그가 이러한 독창적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로부터 주입된 믿음을 그대로 따른다기 보다는 그 당시 그가 접할 수 있는 책을 읽고 자율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데 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생각이 현재의 과학에 비추어 옳으나 혹은 그르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진즈부르크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역사의 연속성을 해체하고 볼 때, 하나의 기원은 어느 앞선 시기의 종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잠재적으로 혹은 역사의 가능성으로 있었다는 사실 그러하기에 미시사가 그러한 가능성들의 지평을 적어도 넓히고 때에 따라서는 역사를 새롭게 구성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다.(이는 카오스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근대에 대한 종래의 사상사적 접근은 상층문화 혹은 지식인 문화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아닌지? 결국 역사에 대한 개량적인, 통계적인 접근을 경계한다. 동시에 잊혀지고 소실된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일회적 사건을 넘어 커다란 연관관계의 형성에 개입하는, 새로운 구조를 발견해 내는 것을 그 과제로 한다.

물론 미시사 자체에 대한 비판들이 존재한다. (또한 우리들의 머리 속에도 몇 가지 혼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전체를 보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어느 학문에서나 제기되어지는 객관화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가 가장 큰 비판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진즈부르크는 역사라는 것의 특성, 즉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진실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인간 삶에 대한 다양하고도 대안적인 질서들을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미시사는 하나의 실험과 대안으로써 위치 지어질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문헌화되어 있는 '역사'라는 것들이 가지는 한계성- 문헌이라는 것을 대대로 계도내의, 혹은 권력 안에 사람들이 전유했던 정보 독점 매개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을 극복하는 하나의 가능성, 혹은 확신으로까지 미시사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노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답변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역사에 있어 밑으로부터의 변혁과 민중문화의 '또다른' 발견, 은폐되었

3) 근대의 예를 든 것은, 당연히 미시사라는 것이 공격하고 또한 보완하려는 대상이 근대적 역사관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진보'나, 일직선적인 역사관의 형성은 근대 이후이기 때문이다.

던 역사의 복원 측면에서 미시사는 하나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 이것이 우리가 미시사를 이야기하는 이유이다.

즉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진실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인간 삶에 대한 다양하고도 대안적인 질서들을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미시사는 하나의 실험과 대안으로써 위치 지어질 수 있다.

## 2) 미시사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주는 의미

할머니들의 삶은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할머니들을 둘러싼 담론들 모두 정당하게 할머니의 삶 그 자체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위안부' 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되고 싸워온 지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고 하지만 할머니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써, 인간으로써 겪어온 투쟁의 역사는 당신의 삶 70년 전체를 통해 존재해 왔다는 것을 이제 우리 스스로 인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러한 담론들은 할머니들의 많은 삶의 모자이크 중 어느 특정한 색깔만을 유용하게 인정해 왔으며 그것과 또 할머니 개인 사이에는 많은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시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미시사는 지금까지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일직선상의 역사관념 속에 의미없는

것들로 이야기되었던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관점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할머니들의 역사 또한 이제까지 민족적이고 근대적인 코드로써만(주로) 읽혀졌을 뿐 할머니들의 삶 자체, 그리고 할머니들이 가진 주체성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되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실제로 의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 할머니들의 삶에 미시사적인, 그리고 생애사적인 돋보기를 들이댈으로써 새로운 역사의 가능성(그것을 여성의 역사라고 명명해도 좋을 듯 하다)을 열어 보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일직선상의 도상이 아닌 이미 할머니 삶 속에 내재해 있는(있을 지도 모를) 현재성을 규명하는 일이다. 기존의 거대한 역사 이야기 속에 배제되었던 할머니 삶의 전 영역에 미시사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은폐되고 재단되었던 할머니들의 삶을 올바르게 복원하고 진정한 여성연대, 일상으로 이야기되는 역사적 진실들을 폭로를 위한 작업에, 미시사는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의 지평을 주고 있다.

## 2. 기억에서 역사로

### 1) 문제제기

인간의 경험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기억이라는 장치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재현된다. 수 많은 사회적 기억들 중에서 몇몇의 것은 사회적인 기억이 되고, 사회적 기억들은 일정한 선택 과정을 통해 역사적 기억으로 표출된다. 그러한 역사적 기억이든 경험을 재현시키는 여러 형태 중에서 대개 문헌으로 남게 된다. 문헌 자료는 가장 객관적 내지는 과학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경험의 총체적인 재현이

라고 볼 수가 없다.

문헌자료가 최소한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계층, 대부분은 지배계층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피 지배계층의 삶은 지배층의 시각을 통해 보여질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자신의 삶의 목소리를 문자나 기록이 아닌 구전과 민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구전과 민속을 하나의 사적(史的)자료로서 인정하고 그것을 복원시키는 것이 총체적인 역사적 재현을 더 가깝게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는 역사에 대해 논의할 때 보수 진영이건 진보 진영이건 간에 역사의 신성성에 대한 신념을 상당히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신성시된 역사는 국가 내지 민족 차원에서 한민족 전체에 단일한 역사적 경험을 강조한다. 따라서 민족주의를 바탕에 두고 있는 많은 역사와 역사서술은 민족 전체의 수준에서 항상 논의가 되고, 그런 역사만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민족사, 국가 전체사 수준의 논의는 민족의 단일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한 민족이라는 단일한 주제에서 대부분의 경우 여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역사 연구는 남성적이고 폭력적이고 유흥적인 저항과 대응을 주로 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공과 사, 내외로 구분된 가부장적 이분법 속에서 여성의 경험은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여성의 경험은 역사성을 가지지 못했다. 즉 여성은 역사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삶의 경험은 역사적일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문헌 자료 속의 불평등은 공간적 차원에서도 지방사의 빈곤으로 나타난다.

4)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지방의 개념: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지방은 단순히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라 여성의 삶의 시공간적 위치와 배치를 포함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지방사 연구는 중앙중심주의, 국가 전체사에서 벗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개인의 삶의 시공간적 위치와 배치에 까지 넓혀져야 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 인류학적 지방사 연구는 중앙 중심적, 국가 전체사 중심적인 역사 연구에서 탈피하여 역사적 경험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지방의 맥락으로 연구의 초점을 이동시키면서 경험 주체의 주관적이고 일상적인 삶에 관심을 갖는다. 지방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 어떻게 침묵 당하고 주변화 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 중앙 대 지방의 대립 내지 위계 구도를 해체해서 다원적인 시각으로 지방을 바라보는 것을 지방사라고 한다.

### 3. 여성사와 여성의 경험

역사에서 여성의 경험을 가시화 시키는 작업은 여성사로서 발전되었다. 여성사는 여성을 연구의 초점, 주제, 서술자로서 보면서, 이제까지 역사에서 보이지 않았던 여성들을 역사의 주체로 보이게 하고 역사가 얼마나 성차별적인(gendered)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Scott) 이는 여성의 경험을 역사적 과정에서 어떻게 가시화 할 것인가의 논의로 모아진다.

그러나 여성간의 공통점에 기초한 여성 경험의 특수성은 다름(difference)의 개념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라일리(Riley)는 여성의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은 시공간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여성의 일시성(temporality of women)을 주장한다. 이에 여성 경험의 다름을 밝히기 위해, 경험의 구성적 성질, 즉 주체가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었고, 사람의 시각에 어떻게 구조화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여성의 주체는 그 여성의 위치(position)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은 역사화 된 유동적인 흐름의 한 부분인 것이다.(Alcoff)

스코트(scott)는 여성 경험의 증거가 차이의 증거는 있지만, 그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작용하는지, 주체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답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을 역사화(historicize)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주체의 자리 매김(subject-positioning)을 통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4. 구술사: 기억에서 역사로

즉 수도 중심의 문헌 중심의 역사 쓰기에서 소외된 많은 지방 사람들의 경험을 하나의 역사로 복원하기 위해 재현의 여러 형태 중에 구술사의 방법론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단일한 주체의 억압성을 풀로하고 그 안에 다름을 구조화하고 그 다름을 위계화하는 구조들을 밝히서 이제까지 주변적이었던 여성사 연구를

5) 여성도 역사 발전에 공헌했다는 것을 보이거나(her-story), 성(gender)이라는 범주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작동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성별사(gender history)로 여성의 경험을 다양하게 가시화하여 왔다.

6) 즉 계급, 인종, 민족적 위치에 따라 여성도 다양한 경험, 존재의 의미 정체성이 있음이 밝혀졌으며, 권력의 다양성, 개인 정체성의 분절성을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여성 개인도 역사적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활성화시켜 결국 하나 하나의 작은 역사(Micro-history)를 모아서 전체사(total history)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 1) 그 인식론적 방법의 전환: 자료로서의 구술사와 텍스트로서의 구술사

구술적 자료들은 사료로서의 풍부한 가능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빙성이나 객관성이 없다고 인식되고 있다. 구술 자료들은 역사적 증거로서는 주관적이며, 私的(私的)이고 부분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구술사자들은 기억의 사실성보다는 그것의 발달 과정, 즉 신빙성보다는 어떻게 기억이 작용하는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회상은 더 이상 얼마간의 과거의 반영이 아니라 현재 현실의 한 부분인 재현으로 취급하게 되었다.(Wachtel) 이에 구술사자들은 구술 자료들을 정의하고 그 유효성과 신빙성을 증명하려고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다.

구술이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인 자료라는 위치성에서 벗어나 현실의 재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우선 구술사를 史的(史的)자료의 위치에 놓을 수 있게 하는 인식론적 전환을 필요로 한다.

즉 구술사 연구는 연구자, 즉 인터뷰를 하는 자, 해석자와 연구 대상 즉 이야기를 하는 자, 화자가 하나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 내는 작업인 것이다. 그러므로 증언(생애 이야기)은 자료로서의 가치보다는 자기의 표현이나 주관적인 경험의 표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텍스트(그 뜻을 읽어내야 할 것, 그 뜻을 찾아내야 할 것)로 파악해야 한다.

### 2) 구술사의 본질

지나온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구술사의 본질은 상호 관련된 세 가지 특성 이야기(narrativity), 시간(temporality), 그리고 주관성(subjectivity)이다.

주관성은 자신의 경험을 의미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의미화 과정은 생애적 시간 속에서 경험한 것을 기억해 내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었던 사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는 나를 계속 만들어 가게 된다.

산세마명은 자기의 산세를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이야기한다는 것이 나다움을 새롭게 찾아 자기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전략이므로 그 맥을 통해 인간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시간은 삶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 삶 자체는 항상 현재 살고 있지만 생애적인 시간은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시간의 고리인 것이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자기 모습에 대한 위치 점, 경험의 주관적 이해를 통한 자기

모습에 대한 정당화,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하는 가운데서 나의 삶과 나에 대한 의미를 항상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새롭게 형성된 나를 다른 사람이 해석하여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바탕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는 사람간의 공유된 경험 의미 체계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야기하는 구조나 방식이 되는 것이다.

즉 구술사 연구는 문헌중심, 과거중심의 역사연구의 해체모니에 대한 도전이다. 역사라는 것을 지식과 권력의 한 형태로 이해한다면 그 지식과 권력의 재현의 형태가 구술인가, 문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술과 문서를 통한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점에서 구술사는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들의 주관적 삶을 사회화,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식 생산의 권력 구조에 대한 인식으로 이끌고 나아가서 대안적 또는 대항적 담론을 배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대한 문화 비평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므로 구술사는 공식적인 역사와 비공식적인 역사 사이의 긴장 상태에서 평범한 사람들, 피지배층의 세계들을 구한다.

따라서 구술사의 목적은 밑으로부터의 역사(from the bottom up)대항 역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것이 구술사가 대항 담론(counter-discourse)이 될 수 있는 근거이다.

구술사는 문헌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즉 피해자, 여성, 소수 민족 등의 삶 이야기를 그것도 다수의 목소리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 다수의 목소리들은 지배적 사회적 담론 속에 의해 침묵되어진 삶의 현실들이고, 또한 간과되어질 수 없는 인간의 삶의 부분들이

다. 그들의 삶 이야기들이 사회적, 역사적 담론으로 인정될 때 사회의 민주화, 다양화는 더욱 진척될 것이다.

#### 4. 한국 사람들의 구술사에 대한 해석: 신세 타령을 중심으로

유철인의 논문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의 구술사에 대한 연구는 한국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방식 중의 하나인 신세 타령이라는 말에 포함된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와 은유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신세타령은 자기의 신세를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신세타령은 이야기하는 사람의 현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강하며 듣는 사람으로부터 그 정당화가 인정받고 공감되기를 바라는 이야기 방식이다. 이야기한다는 것이 나다움을 새롭게 찾아 자기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전략이므로 고백을 통해 연극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 -참고 문헌-

윤택림, 문화인류학 25집, 1994, <기억에서 역사로 -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유철인, 문화인류학 22집, 1990, <생애사와 신세 타령-자료와 텍스트의 문제>

유철인, 문화인류학 29집, 1996,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 이야기의 주제와 서술전략>

유철인, 한국여성학 11집, <지방, 여성, 역사: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지방사 연구>

<<오늘의 역사학>>, 안병직 외 지음, 한겨레 신문사

## 지속되는 고통, 성노예 경험

### 0. 귀국 후 삶에 주목하는 이유

전쟁 당시 일본군 성노예 정책의 폭력성은 귀국 후 할머니들의 삶을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 사회의 성문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노예 경험에 대해 50여 년간이나 침묵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엄청난 물리적, 육체적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는 여성에게 강요되는 '절대적 가치'에 부합 될 수 없었던 여성들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더욱 끔찍한 것은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든, 폭력의 피해자로 만든 온갖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들을 여성 자신이 내재화하도록 조장되는 것이다.

귀국 후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노예 경험자들을 '보편적인 행복한 삶'의 조건에서 벗어나도록 만든 사회구조적 모순을 밝히고자 한다. 원치 않은 폭력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여성의 몸, 그 상처를 들추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성노예 경험자들의 삶을 통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억압들이 보다 분명해지고, 그것을 가능케하는 모순들 또한 분명해진다. 그리고 이는 어떠한 사료들에 기반한 역사적 사실 보다 진실에 가깝다. 이러한 작업이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읽어내고 고민을 지속시켜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1. 일본군 성노예 경험이 남긴 상처

#### 1. 정신적 심리적 상태

성노예 경험자들의 증언과 현재 중앙 병원의 검진 결과 등에서 보이는 것은 육체적인 질환보다는 정신, 심리적

인 불안과 이상이 한층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노예 경험자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적 질환과 특징적인 심리상태에는

①대인 공포증 ② 정신 불안 ③울화 ④수치감 ⑤죄책감 ⑥분노, 욕망 ⑦자기 비하 ⑧체념 ⑨우울 ⑩외로움 등이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대인 공포증 뿐만 아니라 남성기피증을 보이는 성노예 경험자들도 상당수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반의 성폭력 피해자 후유증의 문제로 성적 기능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과도 연결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직후 성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성행위에 대한 혐오, 증오감, 성적 불안감, 성적 관심 감소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신

상태는 단순히 남성과의 만남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전반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마주쳐야 하는 곳에 위입하고도 그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내가 군 위안부였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볼까 봐 두려워 자꾸 옮겨' 다녔던 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불안 속에서 고생만 하는 생활은 죽지 않고 살아 남은 후회로 이어진다.

'이제 내 나이 한 이태면 끝입니다. 만주에서의 일은 기억하기도 싫다. 도망쳐 올 때에는 고향 생각에 사무치고 어떻게든 몸이라도 고향에 묻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살면서 고생고생 하다 보니 왜 그때 죽지 않았나 후회하는 생각들뿐이다. 이리 혼자 떠돌며 미친년처럼 살아온 이것이 사는 목숨인지 무엇인지...'

성노예 경험이 있는 할머니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비하

감으로 젖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자신을 몸을 파는 매춘 여성과 동일시하는 자기 평가에서 만들어진 죄의식과 수치감, 자신의 가해자를 구체화할 수 없는 분노, 살아온 세월에 대한 원망 등이 뒤섞여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체념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자신의 경험은 과거의 화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뚜렷하게 살아 있는 현재의 감정으로 다가온다.

더욱이 이러한 감정들을 해소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생활에 대한 삶의 체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성노예 경험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마음과 정신에 남은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자기 몸에 대한 자결권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모욕감과 더불어 그 경험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서 받아야 할 불이익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패배감에서 비롯된 매우 복합적인 심리적 외상인 것이다.

## 2. 육체적 상태

성노예 경험이 있는 할머니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의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구타 등으로 인한 외상, ②불임, ③성병, ④자궁이상, ⑤심장기관 이상, ⑥소화기관 이상(위염 등 소화성 궤양), ⑦폐 이상(결핵, 기관지염, 천식 등), ⑧장 이상, ⑨신장 이상, ⑩기타 당뇨, 악물 증독 등이 있다.

①에서 ④까지의 경우 성노예 경험으로 인한 직접적인 후유증인 반면, ⑤에서 ⑨까지는 성노예 경험 이후 고통을 삭이는 과정에서 생기거나 강화된 2차적 징후로 볼 수 있다.

구타 등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은 귀국 후 진통제 등의 약을 계속 복용하게 한 원인이 된 것

으로 나타나고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유증을 남겼다.

‘귀국해서는 남양에서 하도 맞아서 거의 다 빠진 이를 해 넣었다. 몸이 아파서 남양에서부터 먹기 시작한 진통제를 먹기 시작한 진통제를 돌아와서도 계속 먹었다.’

불임의 경우는 대부분 본인이 알고 있는 반면 성병은 현재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 현재 중앙 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은 할머니 중 50%가 배독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할머니들은 자신이 성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보 받아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주의 이웃이 권하여 당시 경찰관이었던 3살 연하의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6·25전쟁이 나던 무렵 목포에서 살림을 꾸렸다. 4여년의 결혼생활에도 애를 못 낳아서 그 집을 나왔다. .... 병원에서는 자궁이 굳었다고 수술까지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

반면 불임의 경우 본인이 귀국 후 직접 진단을 받거나 장기간의 결혼, 동거생활에서 임신이 되지 않는 것 등으로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위 이웃이 권하여 당시 경찰관이었던 3살 연하의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6·25전쟁이 나던 무렵 목포에서 살림을 꾸렸다. 4여년의 결혼생활에도 애를 못 낳아서 그 집을 나왔다. .... 병원에서는 자궁이

굳었다고 수술까지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

부인과 질환의 경우 일반 여성과 비교할 때 자궁탈출증 등의 증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출산 경험이나 장기간 성관계가 없었던 것이 그 원인이다.

현재 대부분의 성노예 경험자들은 결핵, 당뇨, 천식, 관절 등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귀국 후 열악한 생존 조건 속에서 평소 자신의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병이 나도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없었던 상황 등이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는 증언자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술로 가슴을 풀었다.’는 말을 한다. 많은 수가 성노예 경험자들이 위장 이상을 호소하는 것은 정신신체증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사실'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현실'

객관적 기록이라 여겨지는 미술사는 20세기 이전의 여성 미술가를 한 사람도 기록하고 있지 못하다. '사실'의 기록이라는 역사에는 그 '사실'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다. 한 명의 여성 미술가도 기록하고 있지 못하는 미술사가 미술사(史)라는 그 자체로 '사실'이라면, 그 '사실'에는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있었고, 그녀들은 그림을 그렸다는 '현실'이 대항해있다. 그리고 '사실'로 기록된 작품들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이 보고싶은 대로 재현되어 있을 뿐이다. 여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미술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옷을 벗어야 했다고 누군가가 표현했듯이 말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전위예술은 전통을 깨나가는 도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혁신적인 전위예술은 전통에 반하는 예술가의 자유를 상징하며, 이는 인간의 자유 일반을 표상한다고 여겨지기에 객관적이고 공식적이라는 미술사는 이러한 전위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설파해 왔다. 그러나 그 자유가 과연 '보편적'인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성이 드러내지는 방식에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가?

그들의 그림에서 여성은 육체로서 존재한다. 얼굴은 없다. 극도로 추상화된 표정과 뒤돌아진 몸만 있을 뿐이다. 그들이 보고 싶은 대로 여성은 그려졌다. 여성의 몸은 중성화 꽃이나 먹는 과일로 은유되고, 이성이 도저히 미치지 않는 '자연'으로 묘사되어왔다.

그녀들은 즐거이 그녀들의 '여성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부정되고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던 몸, 특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눌려온 여성의 몸을 찬양한다. '더러운 피'였던 월경혈은 생명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들

의 작품들은 얼굴을 보듯 우리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또한 그녀들은 수예에서 여성의 감수성을 발견하였다. 페미니스트 미술가들은 왜 여성이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만든 것은 예술이 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수예와 같은 여성 기예를 옹호하였다. 또 '당신의 육체는 전쟁터'라며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며 가부장제 사회에 판지 걸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 여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맥락을 드러내었다.

'무슨 소리야, 그건 예술이잖아. 그런 것만 보지 말고 그림을 봐. 그림을!'

정말 그럴까? 우리는 일체의 사적인 이해 관계를 떠나서 그 작품을 바라 볼 수 있는가?

"성적인 것이 무엇인가가 학습된 이후 나는 '서양 미술 전집 세트'를 꺼내보기 시작했다. 거기엔 젖가슴을 드러낸, 손을 내밀면 만져질 듯한 여자가 시선을 비껴며 누워있었다. 몰래 여성지의 '체험수기' 같은 것을 훑쳐 볼 때와는 달랐다. 나는 당당했다. 이것은 "예술"이었으므로."

이래도?

개인적인 이해 관계를 떠난 관점 '무관심성'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올바른 태도로 여겨져 왔다. 무관심성은 오랫동안 남성적 용어를 가능케 하였고, 그들의 관음적인 시선을 숨 감상이라는 차원으로 승격시켜주었다. 여성을

용서하는 시선의 권력에 불편함을 느끼는 여성인 우리. 무관심성은 신화에 불과하다.

**페미니스트 미술가, 즐거운 심혈을 기울이다!!**

페미니스트 미술가들은 이러한 남성 지배적인 미술 영역으로 진입하기도 하였으며 여성을 배제시켜 온 미술사 기술 방식과 그 이데올로기를 공격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술의 개념을 다시 만들었다.

그녀들은 즐거이 그녀들의 '여성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부정되고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던 몸, 특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눌려온 여성의 몸을 찬양한다. '더러운 피'였던 월경혈은 생명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들의 작품들은 얼굴을 보듯 우리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또한 그녀들은 수예에서 여성의 감수성을 발견하였다. 페미니스트 미술가들은 왜 여성이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만든 것은 예술이 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수예와 같은 여성 기예를 옹호하였다. 또 '당신의 육체는 전쟁터'라며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

그녀들은 즐거이 그녀들의 '여성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부정되고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던 몸, 특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눌려온 여성의 몸을 찬양한다. '더러운 피'였던 월경혈은 생명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들의 작품들은 얼굴을 보듯 우리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또한 그녀들은 수예에서 여성의 감수성을 발견하였다. 페미니스트 미술가들은 왜 여성이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만든 것은 예술이 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수예와 같은 여성 기예를 옹호하였다. 또 '당신의 육체는 전쟁터'라며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

며 가부장제 사회에 단지 걸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 여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맥락을 드러내었다. 마르크스가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떠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듯 페미니스트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인 나를 긍정하는 여성들은 여성이 위치하는 맥락을 떠나 자신을 이야기 할 수 없다. 보편적 인간의 상에 '여성'이 삭제되어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녀들은 놓여있고 그녀들의 작업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녀들의 작업은 그리하여 삭제되거나 제한된 이미지로 반복되는 여성을 복원하는 작업인 동시에 이를 유지시켜 온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를 폭로하는 작업인 것이다. 또한 예술과 세계와의 관련을 거부하며 예술의 무관심성을 주장한 전통 미학의 개념을 뒤집는 작업이다. 이는 결국은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를 가능하게 한 전통적 이분법을 해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그녀들의 유쾌한 작업은 오늘도 계속된다.

## 군대, 나도 할 말 있다.

### 1. 군대, 남성 성문화의 겹집제

군대는 절대 다수가 남성들로 구성된다. 남성들이 점유한 공간인 군대는 국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된' 훈련 속에서 '사나이'를 길러내고 있다. 국방의 신성한 의무는 남성들에게만 주어진 영광으로, 이를 위한 힘은 훈련과 고된 작업은 남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일로, 그래서 남성은 이를 하지 않거나 혹은 할 수 없는 자들-여성, 장애인, 군미필자들 보다 우월한 존재로 자리매김 한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남자'라는 정체성은 훈련소 입소부터 계대하는 날까지 반복 학습된다.

'싸나이 새끼가 이것도 못하냐'

'싸나이'로서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부추겨지고 깎여 내려지면서 군인들 그리고 남성들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형성된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땀어린 전우야 산봉우리에 해가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장을 이룬다. 이룬다!

군가는 이렇게 '싸나이'를 재현하고 있다. 부모와 형제, 조국은 지켜야 할 대상으로 여성화되며 이들을 지켜내는 군인은 '진정한' 남성, '진짜 사나이'로 스스로를 정체화한다.

### 2. 세상에 두 부류로 존재하는 여성

군대에서 여성은 두 부류로 존재한다. 어머니와 창녀. 너무 비악이 심한가? 그러나 대다수의 남성들이 입대 직전 매춘(買春)을 경험한다는 것, 외박 때마다 청량리로 향한다는 것, 휴가 때마다 콘돔을 지급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 심한 비악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군대는 남성들이 '여자를 배우는 곳'이다. 그러나 그들이 배우는 여성은 온전한 여성이 아니다. 군대에서 여성은 육체로 존재하며 여성의 육체는 가슴, 엉덩이, 다리로 분할되어 성적인 기호들로 가공된다.<sup>7)</sup> 군대 안의 성담론은 군대 안 하나의 하위 문화를 구성하고 있다. 각자의 성경험은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누가 더 많이 '따 먹었'느냐에 따라 남성성은 획득된다. 끔찍하지 않은가??

## 2. 군대 안? 군대 밖?

### 1) 민중 까발! - 당연한 나이주의, 권위주의 수직적 위계질서

군대는 계급 사회이다. 철저한 수직적 위계 구조 원리는 군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번이 쟁패'라는 우리의 일상에도 있고 '내 밑으로 모두 윈샷'이라는 우리의 술자리에도 있다. '선배가 말하는데...'라 시작하는 동문회에도, 사장-상무-이사-부장-과장으로 구성되는 회사도 모두 군대를 닮아 있다. 나이주의와 철저한 위계 질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누군가가 표현했듯이 이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군대이다.

### 2)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어버린 군대

국민 개병학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나라의 특성 상 군인들 개인의 경험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경험으로 확산된다. 그리고 이들의 경험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대한 연대감으로까지 확대된다.

개인의 병영담은 공중파를 타고 전역으로 방송되며('신고합니다 TV 내부반') PC 통신에는 전역한 자들의 동호회가 있고, 모 대학에는 각 단대마다 예비역들의 모임이 있다.

창천동 어느 골목 입구엔 민방위 훈련 우수 표창으로 작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서 있다. '무엇이 평가되는가'는 '무엇이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느냐' 또 '무엇이 장려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 '군바리' 판지지는 시리즈로 제작되어 팔리고, 군대를 주제로 한 팬시 용품은 또 얼마나 많은가.

군대는 우리 사회에서 한 사람 개인의 경험이 아니다. 그들이 형성한 강한 연대감은 곳곳에서 발산된다. 군가산제 위한 판결 시 쏟아졌던 남성들의 '분노', 술자리에 서마다 꿀일 줄 모르는 군대 이야기. 그 경험은 군대를 다녀오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배제하는가.

## 3. 그/려/나

나예겐 군대에 간 오빠가 있다.

나예겐 군대 간 아들에게 매일 편지를 쓰는 엄마가 있다.

나예겐 군대를 안 가서 군대 얘기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기를 쓰고 친구의 군대 이야기를 하는 아빠가 있다.

나예겐 한 달에 두 번 군대 간 애인에게 면회를 가는 친구가 있다.  
나예겐 꼬박꼬박 편지를 쓰다 이제는 뜬금없는 군대 간 선배가 있다.

이래도 내가 군대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고?

이래도 내가 군대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내가 듣는 군대 이야기는 언제나

화장실에서 몰래 먹은 초코파이와 죽어라 행군하다 발바닥에 생긴 물집,  
못된 고참에게 당하고 개진 이야기 그리고 풀병을 굴린 이야기다.  
언제나 똑. 같. 은. 이야기

한결같은 군대 이야기엔

내가 경험한, 여성이 경험하는 '군대'이야기는 비집고 들어갈 수 없다. 」

## 4. 나가며

국토 방위라는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남성과 그 남성에게 보호받고 사적인 영역에서 위로해야 하는 여성. 이렇듯 '군대'는 성별 정치학을 기반으로 서있다.  
그리고 여성의 경험을 불허하는 '군대 이야기'는 그 정치학의 발현이다.

확고한 성별 분리의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발화로 무너짐이 가능하다.  
우리 말하기를 멈추지 말자

### 참고문헌

조성숙, "군대 문화와 남성", 여성한국사회연구소, 「남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연세대학교 두입술, 1999 겨울 3호

여성위원회와 함께 하면 자료가 된다.

여성위원회는요

이화여성위원회는 이화 안에서 여성주의적 담론 생성을 모색하고 여성운동의 가져나가는 자치단위입니다. 여성이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이화 안의 작은 문제를 독자적인 흐름으로 가져나가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일상으로부터 느끼는 억압에 대한 여성의 중얼거림이나 작은 몸짓 모두가 여성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거대한 모순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이제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억압스러운 일상에 대한 작은 반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경험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운동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편집후기

오이

역시 편집하는 건 너무 정신없고 힘들다. 나도 하고 싶었는데  
절대로 컴퓨터를 안넘겨주는 램이 너무 많다. 젠.. 내가 고지자고  
하는 것도 안듣고 혼자 다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모기언니가  
없었으면 우리의 자료집은 대박 크게 나올뻔 했당.. 옆에서 자고  
구박하는 램이 미워. 편집기사 램..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나하하

람

그저께는 불가능이라 여겨지던 자료집을 자연스레 반아나게 됨

딸들에게

목 목 목

그림다운반아주고 '백년은 작은 거 같다'고 구박한 오이. 전화도  
반아주고 담배도 물려준 오이 (오이가 너무 많다)그리고 글을 늦게  
넘겨주어서도 여성암에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여의인들 함께  
편집했어준 열매 그리고 같이 있어준 살아 사람들을 무엇보다도  
예술적 편집과 문구의 영감을 제공해주 '까미' 고미여